

# 월간 실적보고

## 2017.08

### Summary of 2017 Aug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19.4%** 성장
  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9.9% YoY** 증가
  - 패키지 **0.8%** / 티켓 **21.7% YOY** 증가
  - (12.1만명 / 11.3만명)
3. 유럽 **27%** 일본 **26%** 남태평양 **22%** 동남아 **9%** 미주 **8%** (YoY)
  - 유럽 전지역 중 최고 성장률 /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
  - 일본 단거리 중 최고 성장률 /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

**8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19.4%**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9.9%, 송객인원 24.1만명

패키지 인원 성장률 0.8%, 12.1만명. 중국과 필리핀발 악재 지속으로 성장성 둔화

티켓 인원 성장률 21.7%, 11.3만명. 3개월 연속 월간 10만명 이상 송출

**8월 실적**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7	121,157	113,362	234,519
2016	120,224	93,122	213,346
YOY	0.8	21.7	9.9

패키지 YoY : 6월 20.2% → 7월 3.4% → 8월 0.8%

티켓 YoY : 6월 29.9% → 7월 27.2% → 8월 21.7%

총송객 YoY : 6월 24.7% → 7월 14.2% → 8월 9.9%

**지역별 성장 (YoY)**

유럽 26.9% 일본 25.9% 남태평양 22% 동남아 8.9% 미주 8.5%

유럽 +26.9%, 스페인 테러 등의 악재가 재발했음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. 구조적 성장에 의한 꾸준함.

일본 +25.9%, 5개월간 두 자릿수 성장률. 근거리 중 가장 높은 성장성. ASP 올해 내내 전년대비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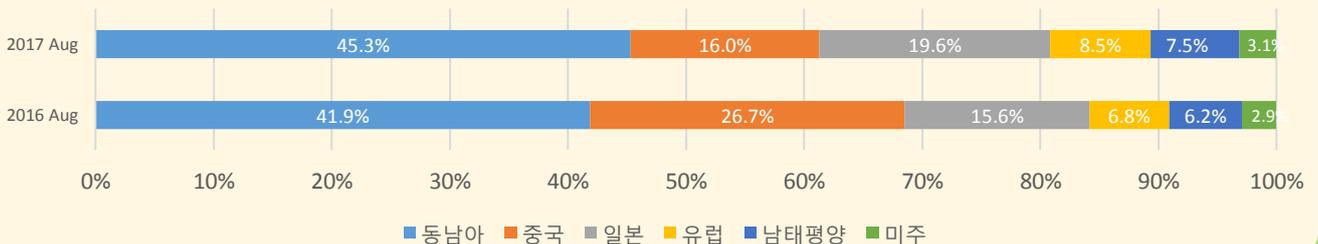
남태평양 +22%, 2016년 3월부터 17개월 중 16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.

동남아 +8.9%, 7월에 이어 필리핀 계엄령 선포의 악영향으로 성장률 다소 둔화되었지만 성장 지속.

미주 +8.5%, 전년 8월 65% YoY 성장의 높은 기저에도 한 자릿수 성장.

중국 -39.7%, 2분기 평균 성장률 대비 역성장폭 개선. 천천히 회복 중.

**인원 비중**



### 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%)

	17년 9월	17년 10월	17년 11월
증감률	15.7	32.4	99.4

\* 2017.08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9월 이후도 일본과 유럽이 지속적으로 전체 성장 주도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. 한중 긴장 국면 지속으로 중국향 여행 수요 회복 다소 더디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상황. 필리핀 계엄령 선포된 지 3개월 지난 9월부터는 그 영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동남아의 성장은 3분기 초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. 추석 연휴가 있는 추석연휴가 있는 10월은 여전히 높은 예약률 지속 중, 연휴로 인한 수익성 증가 기대. 11월은 근거리 지역의 수요 증가 등으로 매우 좋은 예약 상황.